

### 3. 삶을 계획하기

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?  
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? 계획을 세워봅시다.

---

---

---

---

<가정예배 순서지>  
날짜: 5월 15일

## 계획하시는 하나님

### ◆ 모임 순서

- 마음열기 :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
- 찬 양 : 찬송 455장
- 성경읽기 : 창 45:1-15 (구약 71면)
- 말씀나눔 : 계획하시는 하나님
- 삶에적용 : 그러면 나는?
- 기 도 : 합심기도
- 주기도문

### 4. 함께 드리는 기도

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.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,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. 우리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. 우리 가족을 넘어 이웃의 생명까지 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. 우리 가정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### IV. 하가다

-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.      ② 매일 반복합니다.
- ③ 집중해서 합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믿음으로 합니다.
- ⑤ 단순하게 합니다.

(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,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.)

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.

“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 
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”  
[창 45:5]



## 0. 본문 배경

요셉은 누명을 씌워 베냐민을 종으로 잡아들이겠다고 합니다(창 44:1-12, 17). 형들은 필사적으로 베냐민을 지키려 하고, 유다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가 연대책임으로 잡히겠다 제안합니다(창 44:16). 요셉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유다는 요셉의 일화를 밝히며 아버지가 아끼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히겠다 합니다(창 44:18-34).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(1-4절).

형들은 요셉을 보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며,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. 애굽으로 자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며(5, 7-8절), 이 모든 것이 야곱의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하시고 후손을 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.

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. 형들의 생각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개인의 원한을 극복하고 용서합니다(창 50:19-21).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누립니다.

## 1. 말씀 관찰

### 1)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누구 때문이라고 했나요? (5절)

형제들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고백합니다.

“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”(5절). 요셉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.

요셉 인생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. 7절에서도 ‘하나님이 큰 구원으로’, 8절에서도 ‘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’라고 말합니다. 형들에 의해 팔릴 때,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,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, 총리가 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앞서 이끄셨습니다.

요셉의 인생은 이해되지 않고, 억울하고, 한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. 하지만 요셉 안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.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### 2)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나요? (7-8절)

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.

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 길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. 가이드만 따라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(7-8절).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와서 가족이 살아갈 방법을 준비했듯이, 하나님은 요셉보다 앞서서 요셉을 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.

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, 믿음의 후손 전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(7절). 요셉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, 그 너머에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.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,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.

## 2. 말씀 적용

1)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.

2)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, 그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사건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.